



세계 가난한이의 날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347-834-5784

212-736-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c.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롯데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다니엘 12,1-3

화답송



(후렴)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 이 다.

○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히브리 10,11-14.1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13,24-32

성가 | 입당성가 [46]

영성체 [498]

예물준비 [41]

파견 [400]1~3절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전명자 베로니카	익명
추승연 베로니카	박지만
유혁일 헨리	가족
윤희중	윤요한
믿음속에 고인이 되신 맨하탄 교우분들 위해:	-
강주옥소피아 원용한요아킴 강세랑엘리사벳	익명
조화장안나 강건대미리아 박난성요셉프란치스코	익명
김화자소화데레사 고창숙엘리사벳 고종호마태오	익명
김종목리차드 김영복아네스 정인해에로니모	익명
이경자벨라뎃다 배재철안토니오	익명
세상을 떠난 레지오단원들	희망의모후
안말틴	안영옥 분다
박난성 요셉 프란치스코	양마리아
김영철, 박인애 스텔라	손명희
한시찬 라파엘 기일	한안나, 데레사
김일동 스테파노 정한매 안나	한한숙
이경용	한한숙
김광식 바오로	김지영
김학순	도미니카
황장현, 최정인 안나	황경숙수산나
황경희 루치아	황경숙수산나
생미사	봉헌
김윤수 미리암 평화	하태일안드레아
방진우 건강	하태일안드레아
허서현 이사벨 새유아세레자	하태일안드레아
김진열 가롤로 신부 영명축일	유경자데레사
김순자엘리자베스 영명축일	성모회
이지연 안나레지나 영육건강	이영애레지나
이병국, 조앤 그레이스, 이지훈 아네스	이영애레지나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1월 17일	김유화	민완준	이경자	이경자	김영숙	이유스티나 김실비아
11월 24일	장혜윤	강호영	김미혜	김미혜	유정옥	김실비아 최사도용한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11월 영명일 맞으시는 분들~ 축하드려요

11.1 모든 성인 11.4 가롤로 11.10 레오(레아) 11.11 마르티노
11.15 알베르토 11.16 마르가리타, 젤뚜르다 11.17 헝가리의 엘
리사벳 11.22 체칠리아 11.23 클레멘스 11.30 안드레아

▶오늘 친교모임 없습니다.

▶꾸리아 연차 총친목회

일시: 11/17(오늘) 11:00 꾸리아
장소: 아랫성당, 식사(1B)

▶미국 본당 연례 프렌즈 기빙 초대

일시: 11/17(오늘) 1:30pm~4pm
장소: 다미안홀. 포트럭 스타일로 진행
함께 오셔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하세요.

여전히
가운뎃은 아픔답다~



▶성령기도회 찬양미사

일시 및 장소 : 11/19(화) 6:30pm 다미안홀
워령 성월을 맞아 추모를 원하시는 분은 사진을 가져 오십니다.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
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
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사랑의 음악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11/16(토), 제 19차 사랑의 음악회를 위해 후원금과 봉사, 참여
와 기도로 함께 해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음악회 수익
금, 후원금에 대한 상세 내역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후원금 합계: \$ 3,450

강호영 민원준 김지영 조봉래 8282 이기수 손명희 안영옥 Jack
Jun 강혜숙 큰집 원조 익명3

▶성경공부반

신부님반	시편과 지혜문학	2,4째주 토 10am~11:30am	2B
수녀님반	사도행전~요한묵시록	매주일 12:40pm~1:50pm	1B
		매주목 10am~11:20am	3A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
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후보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NY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NY,NY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NY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 clearlaser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연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WEST 8 LIQU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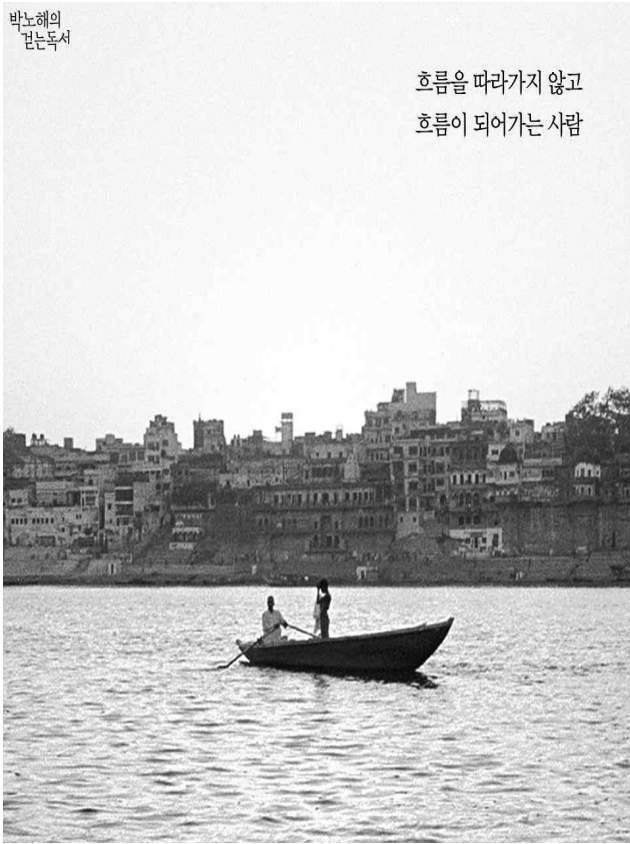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 8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요약)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 앞에 다 다른다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집회서의 저자 벤시라는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지혜를 구하는 여정에서 계시의 기본 진리들 가운데 하나를 발견합니다. 곧,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의 고통 앞에서 그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참지 못하실’ 정도로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의 마음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목숨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무기와 관련된 그릇된 정책으로 얼마나 점점 더 많은 이가 가난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등 돌릴 수 없습니다. 기도 에 봉헌된 이 해에,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기도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가난한 이들과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도전이자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목 활동입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이가 겪는 최악의 차별은 영적관심의 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복음의 기쁨』, 200항).

하느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한시도 잊지 못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를 하여도 응답이 없는 듯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침묵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무심하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침묵에는, 하느님과 그분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이제 모든 교회 공동체의 정규 거행일이 되었습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가난한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현존과 필요를 인식하라는 도전과제를 모든 신자에게 내어놓는, 그래서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사목적 기회입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말을 귀담아듣고 그들을 지원하는 데에 헌신하는 사제, 축성 생활자, 남녀 평신도는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당신을 향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성은 만남과 곁에 있어 줌으로 드러나는 애덕 안에서 확인됩니다. 기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덕도 기도가 없으면 이내 바닥이 드러나고 마는 자선 행위에 불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삶을 바친 콜카타의 마더 테레사 성녀는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을 섬기는 사명을 위한 힘과 믿음을 바로 기도에서 길어 올렸음을 계속해서 거듭 밝혔습니다. 테레사 성녀는 “저는 그저 기도하는 가난한 수녀일 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당신 사랑을 채워 주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가난한 이에게 그 사랑을 전해 줍니다.”

성년을 향한 여정에서, 저는 모두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를 권고합니다. 잠시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작은 관심과 미소, 다정한 손길, 위로의 한 마디를 건넵시다. 이러한 몸짓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노력이 필요하고 흔히 드러나지 않으며 조용하지만 기도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기도는 하느님께로 올라갑니다."

집회21,5 참조